



# 추신수 방망이 대폭발

에인절스전 시즌 세번째 4안타... 팀 역전승 견인



타격감을 되찾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와 방문경기에 우익수 겸 3번타자로 선발 출장, 다섯차례 타석에 들어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불넷도 하나 골라내는 등 매 타석 출루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1회초 불넷을 골라 나간 추신수는 2-3으로 뒤진 3회초 1사후 우중간 안타를 때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추신수는 이어 조니 페랄타의 2루타 때 홈을 밟으며 득점도 추가했다.

5회에는 고삼도 타격과 함께 빠른 발까지 과시했다. 3-4로 뒤진 상황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를 친 추신수는 빅터 마르티네스의 땅볼때 2루를 밟은 뒤 과감하게 3루 도루에 성공했고, 조니 페랄타의 중전안타 때 홈으로 들어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7회초 1사 1루 다시 타석에 선 추신수는 이번에는 LA 세 번째 투수 대런 올리버의 초구를 받아쳐 좌중간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쳐냈다.

추신수는 6-4로 뒤진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도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4번째 안타를 작성하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추신수는 타율을 0.283에서 0.291(357타수 104안타)로 끌어올리며 지난 18일 이후 열흘만에 2할9푼대에 복귀했다.

클리블랜드는 9회초 4번 타자 마르티네스가 통렬한 3점 홈런을 터뜨려 8-6으로 역전승했다. /연합뉴스



“배구 심판 수신호는 이렇게...” 지난 27일부터 송원여상고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시배구협회(회장 곽광상) 주최 심판기술지도강습회에서 교직원·지도자 등 160여명의 참가자들이 ‘심판 공식 손동작(핸드 시그널)’을 배우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송원여상고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시배구협회(회장 곽광상) 주최 심판기술지도강습회에서 교직원·지도자 등 160여명의 참가자들이 ‘심판 공식 손동작(핸드 시그널)’을 배우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리옹 예선탈락 ‘수모’

광주체고 김유라 金

중·고유도연맹전 52kg급

### 피스컵 포르투에 0-2 패

포르투갈 프로축구 강호 FC 포르투가 국제클럽 축구대회인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다.

포르투는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우엘바 누에보 콜롬비노구장에서 열린 피스컵 D조 조별리그 올랭피크 리옹(프랑스)과 1차전에서 브라질 출신 공격수 헬리가 전반 9분과 후반 30분 연속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각 조 3개 팀 중 1위 팀만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조별리그에서 유럽 명문 포르투는 이번 승리로 30일 세비야에서 열린 베식타스(터키)와 두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준결승에 오를 수 있다. /연합뉴스

1893년에 창당한 포르투는 최근 17시즌 동안 12차례 우승을 포함해, 포르투갈에서 만 모두 55차례나 정상에 올랐던 클럽이다.

반면 지난 대회(2007년) 챔피언 리옹은 지난 26일 베식타스 전 무승부에 이어 1부1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포르투는 유럽 강호답게 기선도 일찌감치 잡았다. 포르투는 최전방에 배치된 공격수 헬리가 전반 9분 만에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주도권을 잡았다. 헬리는 후반 30분에도 왼쪽 측면에서 아르 정면으로 돌파한 뒤 오른발 슛으로 팀의 두 번째 골까지 넣어 승리 주역이 됐다.

헤수알도 페레이라 포르투 감독은 후반 41분 헬리를 빼고 에르네스토 파리아스를 투입하는 여유를 보이며 눈앞에 둔 승리를 지켜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김유라가 2009 하계 중고유도연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유라는 지난 27일 강진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52kg 결승에서 김민주(강원도영서고)를 모두걸기 한판승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김유라는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 김세희(경기 동두천고)를 벌칙에 의한 유효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여고부 -57kg에서 이혜린(여수정보고)이 임유리(광주체고)를 한판승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8일 열린 남고부 -90kg 경기에선 신성호(광주체고)가 준결승에서 황민호(대전 명석고)에게 누르기 한판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순천대 장인성 2위

대통령기정구 단식

순천대 장인성이 제47회 대통령기 전국경구대회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인성은 28일 경북경주시민정구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대부 단식 결승에서 유은우(인하대)에게 0-3으로 패해 아쉽게 2위에 그쳤다.

남자일반부에선 배환성(이천시청)이 이수열(달성군청)을 3-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일반부에선 김경련(안산시청)이 김예경(농협중앙회)을 3-1로 물리치고 복식에 이어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월드컵 유치하면 남북 분산 개최”

축구협, 정부에 2022 월드컵 유치 계획서 제출

대한축구협회가 2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2022 FIFA 월드컵 개최 계획서’와 체육과 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대한민국 개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남북 분산 개최의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축구협회는 계획서를 통해 문화부에 ▲국민 통합의 시너지 효과 ▲국제사회에서 재도약 ▲남북 축구 화합의 물꼬 트기 등을 월드컵 개최 목적으로 제시했다.

또 개최가 확정되면 1~2경기 정도를 북한과 분산 개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검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계기를 만들어 동북아시아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북한의 김일성경기장(10만명 수용)과 능라도경기장(15만명 수용)은 FIFA가 요구하는 경기장 규격(조별에선 4만명 이상, 준결승 6만명 이상, 개최식 및 결승전 8만명 이상 수용)을 만족한다.

FIFA가 요구하는 12개 경기장 확보에 대해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건설한 10개 경기장을 활용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



29일(수) ▲보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세광고 : 진흥고)(12 : 50·SBS스포츠) ▲전국학교대학 배드민턴선수권 결승(16 : 00·SBS스포츠)

▲2009 일본프로야구(주니치 : 요미우리)(17 : 5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SK : 히어로즈)(18 : 10·KBS n스포츠) <삼성 : LG>(18 : 15·X-ports) <두산 : 한화>(18 : 15·MBC ESPN)

<KIA : 롯데>(21 : 00·SBS스포츠) 30일(목) ▲2009 로마수영선수권대회(00 : 50·KBS2·KBS n스포츠)

## 이진호 아시아 최고 ‘몸짱’

보디빌딩선수권 ‘대상전’ 1위 신안군청 부창순 80kg급 우승

한국 보디빌딩 미들급의 간판 이진호(대구시청)가 제43회 IFBB(국제보디빌딩연맹) 아시아 남자보디빌딩 선수권대회에서 최고의 근육을 자랑하며 ‘미스터 아시아’로 선정됐다.

지난 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월드컵 게임에서도 85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진호는 27일(한국시간) 인도 아우랑가바드에서 열린 대회 85kg급

본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각 체급 우승자끼리 겨루는 대상전에서도 1위에 올라 ‘아시아 최고 몸짱’의 영예를 안았다.

월드게임 75kg급 금메달리스트 부창순(신안군청)은 이번 대회에서는 80kg급에 출전, 열흘만에 한 체급을 올리고도 2009년 미스터코리아 박인정(인천시설관리공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사상 최초로 9개 체급에 출전한 선수 10명 모두가 메달을 따내며 금 5, 은 4, 동메달 1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연수일정(2009년 제3기)

-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9. 31(월) 9:10, 오후반 2009. 8. 31(월) 13:4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31(월)
- 수업기간: 2009. 8. 31(월)~2010. 2. 8(월) (6개월/24주)
- 수강료: ₩300,000
- 모집인원: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30명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오후반 12:40~17:30
- 수료후 특전: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2단계 수료시), 각 학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직업학교특기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화 (062)530-3873~5
- H.P 016-611-1171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 9기)

구분	일정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토요일 2009. 9. 5(토) 09:10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9. 5(토)
수업기간	2009. 9. 4(금)~2010. 2. 27(토) (6개월/24주)
수강료	₩298,000
모집인원	1단계 금요일/토요일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20명
수업시간	매주 금, 토 오전반 9:10~13:00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발급 수료증 수여,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화: (062)950-3584, 3585
- 팩스: 011-614-4160
- 광주은행: 0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 kwu ac.kr

###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령기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원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p>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여(평당 4702) 200평 22여(평당 1100만)</p> <p>수원택지개발지구 아주단지 현의안도인택지 생활지대용지</p> <p>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방 122평 80평</p>	<p>주유소 650평 35여 600평 16여</p> <p>골프연습장 : 120여</p> <p>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단지 2900 2600 4900평 수원동 4차선길 1200평 1800평 복구본촌동 850평</p>	<p>전용 가능한 임대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자연임대 6차선길 생산지대 : 2800평-평등공단지대 근 특가상당</p> <p>우량임야 (연수실 복지시설 관외향 투자 등) 담양 25만평 정성 14만평 보성 4만평 보성 56만평 함평 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p> <p>상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p>

건물 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 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 무등산 문빈정사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심터

##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2009년 윤달 5월에 개장하실 문빈정은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결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 거주하는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 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투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비싼 자재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묘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묘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근대천원교조제무등산문빈정사납골당예약및문의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